

본 작품들의 열람기록은 로그파일로 남게 됩니다. 단순 열람 목적 외에 작가와 울산광역시의 허락 없이 이용하거나 무단 전재, 복제, 배포 시 저작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울산 문화자원 스토리텔링 공모전

구 분	내 용
제목	3인의 사냥꾼
수상내역	울산 문화자원 스토리텔링 공모전 우수상
작가	김보배
소재	착호비
기획의도	<p>2003년에 울산 동구 마골산에서 발견된 착호비는 호랑이 덕에 승진한 하급관리 전후장의 인생역전을 기록한 비석이다. 이 비석을 소재로 삼아, 울산이 고래뿐만 아니라 호랑이로도 유명하였다는 역사적 사실을 재조명하고, 동시에 드라마틱한 한 인간의 인생 자락을 펼쳐보고자 한다. 아울러 옛적부터 한반도와 떼려야 뗄 수 없었던 호랑이라는 존재에 친근한 사연을 붙여넣어, 보다 따뜻하고 애정 어린 시각에서 울산의 호랑이를 그려볼 것이다.</p>
등장인물	<p>전후장 : 말을 기르는 울산 국영목장의 관리자이자 호랑이 포수로 소문이 자자하다. 무뚝뚝하고 매사에 무덤덤한 편이다. 호환으로 아내를 잃고, 외동아들은 백치가 되었다. 호랑이에 대한 원한으로 벌써 울산 일대의 호랑이를 다섯 마리나 붙잡았지만, 성이 차지 않는다.</p> <p>이수풍 : 불당골에서 제일 위세 등등한 이대감의 서자. 이대감의 늦둥이로 태어나 서자임에도 부족함 없는 사랑을 받고 자랐지만, 성정이 웅졸하고 세상에 불만이 가득하다.</p> <p>산이 : 불당골로 흘러들어온 연고 없는 떠돌이 화가. 곱상한 외모에 연변이 화려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재주가 있다.</p> <p>그 외 인아(전후장의 아들), 인아모/ 이대감(이수풍의 부)/ 동료/ 양반1,2/ 마을 사람 등</p>

3인의 사냥꾼

췌 1. 목장 전경

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인 겨울의 목장 전경이 시원스레 펼쳐진다.
 힘찬 말울음 소리와 함께 곧 설원이 말발자국으로 어지러워진다.
 말 위에 탄 전후장, 40대 초반의 단단한 체구, 무뚝뚝한 인상이다.
 전후장, 말에서 재빠른 몸놀림으로 내린다.
 말의 상태를 살펴보는 그를 뒤에서 부르는 목소리, 인아(10대 중반)다.

인아 아버지!

전후장, 얼굴에 화색을 띄며 반갑게 돌아본다.
 하지만 이내 얇은 옷차림으로 마냥 손만 흔들어대는 인아를 보고 눈살을 찌푸린다.

전후장 왜 이리 춥게 나온 것이냐? (제 목도리를 풀어 인아의 목에 감아주다가 문득
 턱 언저리의 멍을 보고는) 이게 무어냐? 어찌 된 상처야?
 인아 (배시시 웃으며) 아~덜하고 눈싸움 하다가... 뽀- 맞았지!
 전후장 (인아가 안쓰럽다) ...

췌 2. 불당골 마을 길거리

손을 꼭 잡고 나란히 걷는 전후장 부자.
 그런 그들의 뒤로 상여 행렬이 지나간다.
 전후장, 인아의 손을 꼭 잡은 채 길에서 비켜선다.
 상여소리에도 상황 파악을 못하는 인아는 오히려 노래를 따라 흥얼거린다.
 뒤에서 수군대는 마을 사람들의 음성.

행인1 또 그 백두한테 당했다지?
 행인2 이번이 벌써 몇 명 째여? 이러다 우리 불당골에 남아나는 사람이 없겠어.
 행인1 오죽하면 이름이 백두겠어. 저 놈이 잡아먹은 머릿수가 백 명이라지 않아.
 행인2 하여간 안 됐어. 꽤나 이름 날린 포수라던데... 결국은 백두 앞밭에 맞아서
 그대로 목이 꺾였다잖어. 아주 제대로 목이 돌아가서는 아무도 손도 못 대고
 결국 그대로 관 속에 넣었다던데?
 행인1 (고개 저으며) 저 놈은 글렀어. 나라님이 와도 못 잡을 악호라니까! 호랑이 다
 섯 잡았다는 전후장도 백두는 못 잡을...

행인1, 행인2의 눈짓으로 말을 멈춘다.
전후장을 흘끔거리는 행인1,2.
전후장, 굳은 얼굴로 상여 행렬 앞으로 걸어가 길을 막는다.

썬 3. 길가 인근 정자

화려한 도포 차림의 수풍(20대 중반), 계절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치스런 부채로 손바닥을 탁탁 두드리며 전후장을 호기심어린 시선으로 보고 있다.

수풍 저 놈이 그 놈이란 말이지... 호랑이 다섯을 골로 보낸 무지막지한 포수 놈이...

수풍, 손바닥을 두드리던 부채를 멈춘다.
뭔가 피가 난 듯 유쾌한 얼굴로 정자 밖으로 몸을 쭉 내민다.

썬 4. 불당골 마을 길거리

수풍의 시선이 그대로 이어져 다시 전후장의 얼굴로 연결된다.
전후장, 웅성대는 상여꾼들을 밀치고 관 뚜껑을 연다.
놀라는 사람들로 어수선했던 길거리.
전후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관 속에 누워있는 시체를 본다.
커다란 호랑이 발에 채여 목이 돌아간 시체를 담담하게 바라보다가, 놀랄 만한 힘으로 목을 도로 제자리로 돌려놓는다.
목이 돌아가는 소리가 섬뜩하다.

전후장 (시체를 보고) 이보오, 내가 그대 원한은 꼭 풀어드리리다.

다들 일어있는 가운데 전후장만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그러나 망자에 대한 예를 갖추어 정중하게 관 뚜껑을 닫는다.
오직 들려오는 소리라고는 상황 파악을 못한 인아의 노래 소리 뿐이다.

인아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오실 날이나 일러 주오-

썬 5. 전후장의 집 (저녁)

홀아비 냄새가 물씬 풍기는 낡고 초라한 전후장의 집.
전후장, 인아를 앉혀놓고 멍이 든 턱에 계란을 문질러준다.
그런 두 사람의 뒤, 벽에 세워져 있는 낡은 총 한 자루.
총을 보는 전후장의 눈빛이 점차 어두워진다.

편 6. 마골산 인근 (밤) (회상)

아직 따뜻한 피에 녹은 눈이 시뻘건 웅덩이를 만든다.
 그 웅덩이에 주저앉아 있는 10살가량의 인아.
 인아, 피 묻은 어미의 한복자락을 품에 꼭 쥔 채 서럽게 울고 있다.
 거친 숨을 내쉬며 뛰어온 전후장과 햇불을 든 마을 사람들.
 햇불이 일렁이는 어린 인아의 얼굴이 초점 없이 멍하다.
 전후장, 오열하며 뛰어가 인아를 끌어안는다.

인아 아버지... 어무이가... 어무이가... (넋을 놓은 듯)...

사람들, 햇불로 인아 주변을 비춰보면 커다란 호랑이 발자국과 작은 새끼 호랑이 발자국이 어지럽게 찍혀 있다.

인아 (멍청하게 중얼거리는) 백두... 백두...

백두란 말에 눈빛이 형형해지는 전후장.
 산 멀리서 찌렁찌렁한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린다.

편 7. 전후장의 집 (저녁) (현재)

호랑이 울음소리, 그대로 이어진다. (전후장의 환청)
 전후장, 눈에 핏발이 선 채 당장이라도 총을 들고 일어날 기세다.
 그 때 전후장의 팔을 흔드는 인아.
 동시에 울음소리도 사라진다.
 전후장, 표정 풀고 인아를 보면 인아가 배시시 웃고 있다.

인아 (침을 꿀꺽 삼키며) 아버지, 나 그거 먹어도 되나?

전후장, 인아에게 계란을 내어준다.
 허겁지겁 날계란에 구멍을 내 쪽쪽 빨아먹는 인아.
 전후장은 한숨을 푹 쉬며, 방구석에 쌓여있는 책들을 바라본다.

전후장 인아야, 공부는 이제 안 할 것이야?

인아 (다 먹은 계란 구멍을 아쉽게 보면서) 몰러, 몰러. 봐도 몰러. 머리 아퍼.

전후장 (인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게 다... 백두 그 요물 때문이다. 그 놈만 잡으면... 그 놈만 잡으면...

전후장이 그러거나 말거나, 인아는 아쉬운 입맛만 다신다.

편 8. 마골산 인근 (밤)

야산에 울리는 청명한 휘파람 소리.
 쌓인 눈이 달빛을 반사해 묘한 분위기를 풍기는 산길을 걸어오는 산이.
 옛되고 곱상한 것이 어린 도령 같은 분위기다.
 붓짐을 추켜올리며 달을 올려다보는 산이.

산이 고생 하시는군.

산이의 말이 끝나자마자, 어쩐지 달이 더욱 환하게 빛나는 느낌이다.

편 9. 전후장의 집 (아침)

곤하게 자고 있는 전후장 부자.
 갑자기 밖에서 부산스런 소리가 들린다.
 전후장, 잠에서 깨어 밖으로 나가보면 마당에 쌀과 먹을거리를 내려놓는 사람들이 보인다.
 그리고 그 뒤로 뒷짐 켜 채 선 수풍, 전후장을 보고는 씩 웃는다.

전후장 이것이 다 무엇인지...?
 수풍 자네가 전후장이지?
 전후장 (고개만 끄덕인다) ...
 수풍 날 알지?
 전후장 (고개를 젓는다)
 수풍 (기 막혀서) 날 몰라? 불당골서 제일가는 이대감을 모른단 말인가!
 전후장 그야... 이대감님은 잘 알지만...
 수풍 (버럭 하는) 내가 바로 그! 이대감의 자제시다!
 전후장 (어쩐지 알겠다는 듯한 얼굴로) 아... 그... 늦둥이시라는...
 수풍 그래! 그런 내가 친히 자네를 만나러 왔다- 이 말일세!

수풍, 전후장에게 다가가 은밀하게 귓속말을 하려는 순간, 그런 그를 인아가 밀치고 지나간다.
 수풍, 그대로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모양새를 구긴다.
 그러거나 말거나, 인아는 쌀 꾸러미 옆에 놓인 계란을 신나는 얼굴로 꺼낸다.

편 10. 목장

말을 살피는 전후장.

생각에 잠긴 그를 위로하듯, 말이 선량한 눈을 깜빡대며 그에게 머리를 비빈다.

동료 저 놈도 아는가보이. 자네 덕분에 자기들이 목숨 부지 하는 걸 말이야.
전후장 (힘없이 웃는) 그게 어디 이놈들 좋으라고 하는 젠가.
동료 그럼? 자네 좋으라고 하는 게야?
전후장 ... 글썄...
동료 이제와 하는 말이지만... 이제 그만 하면 됐어. 호랑이 다섯이나 명줄을 끊어놓
 았으면 자네도 할 만큼 한 거야. 언제까지 그 위험한 호랑이 사냥에 매달릴 셈
 인가?
전후장 백두... 그 놈... 그 흉악한 놈은 잡고 끝을 내도 내야지.
동료 그러다 자네까지 잘못 되면? 인제 인아 생각해서라도 자네, 몸 사려야지.
전후장 인아... 우리 불쌍한 인아...

썩 11. 전후장 집 (회상)

수풍, 흙먼지가 묻은 도포자락을 연신 털어내면서 전후장에게 속살거린다.

수풍 전후장, 자네, 백두에 미쳐 있다지?
전후장 ... 저 뿐만 아니라... 조선 팔도에 총 쏘다 하는 자들은 전부 백두를 잡으려
 고 혈안이 되어 있죠.
수풍 그래도 자네만 하겠는가?
전후장 ...
수풍 우리, 거래 하나 합세.
전후장 (무슨 말인가 싶어 바라보면)
수풍 자네는 백두를 원하고, 난 백두 잡은 이름값을 원하네.
전후장 나으리, 어찌 제가 잡은 백두로 나으리 좋은 일 시키는 것을 거래라 하십니까?
수풍 (부채로 전후장의 입술을 톡톡 치며) 입이란 그저 뒷말을 기다리며 다물고 있
 을 때도 있어야 하는 법일세. (뜸들이다가) 내, 자네에게 최신식 청제 총을 구
 해다 줘세. 이정도면 거래가 되겠는가?

썩 12. 목장 (현재)

썩 10과 연결-

전후장 (결심 선 듯 단호하게) 인아를 위해서일세! 제 어미 죽고 뉘 놓으면서도 백두
 를 말했던 아이야. 분명 백두 그 놈을 잡으면! 그 원을 풀어주면 인아 저 놈도
 정신을 차릴 테지!

전후장, 미련 두기 싫다는 듯 후딱 일어선다.
그런 그를 바라보는 동료, 혀를 찡찡 찬다.

동료 (혼잣말로) 원, 이래서야, 전씨 자네가 백두를 잡는 건지 백두 그 놈이 자넌 잡는 건지 모르겠구먼.

편 13. 이대감 저택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능히 이대감의 가세를 짐작케 한다.
인자한 인상의 노인인 이대감, 풍경화를 그리고 있다.
수풍은 그 옆에서 먹을 갈면서도 연신 불만에 가득 찬 얼굴이다.

이대감 대관절 무슨 연유로 그런 험한 일을 한단 말이나?
수풍 사내대장부로 태어나 큰 뜻을 펴고자 함입니다.
이대감 (한적한 계곡을 그리며) 그것이 고작 호랑이 잡아 벼슬을 얻겠다는 것이야?
수풍 고작이라니요? 그저 그런 호랑이가 아니라 무려 백두입니다, 백두! 사람 백 명을 잡아먹은 악호 말입니다! 그런 놈을 해치우는 것이 어찌 저 하나의 공명을 위하고자 하는 일이겠습니까? 작게는 우리 불당골 백성들을 위함이고, 크게는 나라님을 위한 일이지요.
이대감 말은 참으로 청산유수로다! 차라리 그 제주로 과거에 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수풍 ... (입을 비죽이는) 아무리 아버님께서 절 고이 여기신다 하나, 제가 서자란 사실은 잊지 않았습니다. 이 고을 벗어나 봤자 아버님을 대감님이라 부르는 처지가 될 뿐이고, 벼슬길 나간다 설쳐봤자 그저 잡과나 응시할 수 있는 반쪽자리 양반이지 않습니다.
이대감 내 너를 수풍(水風)이라 이름 지은 것은, 그런 굴레에 얽매이지 않고 물처럼 바람처럼 자유롭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었다.
수풍 (이대감이 그린 그림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 절 여전히 온전한 아들로 여기신다면,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십시오. 아버님 아들로 태어난 이상, 저 역시 아버님처럼 이름을 날리는 대장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대감이 그린 풍경화 속으로, 호랑이 한 마리가 어슬렁어슬렁 걸어가는 모습이 나타난다.

수풍 저는 백두 그 놈을, 꼭 잡아야겠습니다.

이대감, 어쩔 수 없다는 듯 한숨을 내쉬다.
그리고 때마침 하인이 찾아와, 전후장이 왔음을 알린다.
이대감과 수풍, 하인의 뒤에 선 전후장을 바라본다.
수풍, 반가운 기색이 역력하다.

편 14. 시장

수풍, 으스대며 앞장서고 전후장은 그 뒤를 묵묵히 따른다.

길 한쪽에서 몇몇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그림을 그리고 있는 산이를 스쳐 지나가는 수풍과 전후장.

수풍 내가 말이야, 벌써 다 주문을 해 놓았다네. (자랑하듯 돌아보며) 사실 오히려 찾는 게 늦은 셈이지. 워낙 비싸서 아버님의 유히가 있어야만이 값을 치를 수가 있었거든.

대장간 앞에 멈춰 선 수풍과 전후장.

수풍 이보게. 내가 맡긴 물건은 잘 있지?

대장장이 (굽실대며) 암요! 원네가 최상의 상태로 다듬어 놓았습죠!

수풍, 대장장이가 건네는 총을 전후장에게 준다.

전후장, 번쩍이는 새 총을 신중하게 살핀다.

수풍 어디 한번 자네 솜씨 좀 봅세.

전후장, 묵묵히 총만 보고 있다.

수풍 (재촉하는) 호랑이 다섯을 붙잡은 실력, 발휘 좀 해 보게나!

수풍의 재촉에 전후장, 총을 겨눈다.

총구가 겨누는 방향에는, 두 눈이 서릿발 같은 호랑이가 있다.

그 호랑이를 향해 총을 쏘는 전후장.

호랑이의 미간을 신기에 가까운 솜씨로 맞춘다.

시장 사람들, 다들 놀라서 전후장과 호랑이를 번갈아 바라본다.

그 중에서도 제일 놀란 사람은, 산이다.

전후장이 맞춘 것은, 산이가 뒤에 걸어놓았던, 금방이라도 살아 움직일 것 같은 호랑이 그림인 것이다.

수풍, 감탄한 얼굴로 손바닥을 연신 부채로 내려친다.

전후장, 사람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새 총의 성능에 만족한 얼굴이다.

편 15. 주막, 실외

산이, 허겁지겁 국밥을 먹고 있다.

수풍, 겨우 평상에 엉덩이만 붙인 채 연신 불결한 주막에 찻찻해한다.

전후장 그 그림이, 진정 백두를 그린 것이란 말인가?
산이 (먹느라 바빠서 고개만 끄덕인다)

옆에 있던 동네 사람들, 대화에 끼어든다.

동네1 암, 산이 도령이 그린 게 어디 그 뿐인가? 나라님 낫도 그렸다는 걸!
수풍 (기가 차서) 이렇게 새파랗게 어린놈이 어진을 그렸다고? 도화서 화원들도 아
 무나 못 그리는 걸?
동네2 어리다고 무시하지 말라고! 산이 도령 정도면 그럴 만 하제. 아까도 봤잖어?
 호랑이 털 한 오라기까지 생생하게 그린 걸.
수풍 아니 근데 내가 누군 줄 알고 반말인가, 자네?

전후장, 동네1,2와 입씨름하는 수풍을 뒤로 한 채 산이에게 말을 건다.

전후장 백두를, 직접 본 것인가?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그리 생생하게 그릴 수 있는
 가?
산이 (트림을 꺼억 하고는 씩 웃는다) 그야- 쉽지요. 아무도 본 적이 없으니 말입
 니다.

수풍, 산이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산이 입때껏 백두를 만나 살아남은 자가 없으니 또한 틀리게 그렸다 지적할 이도 없
 지요. 게다가 그 정도 괴수라면 필시 사람들의 공포감 또한 대단할 터. 저는
 그저 최대한 사람들이 두려워 할 요소를 모다 집어넣은 것뿐입니다.
수풍 (관심 있는 얼굴로) 이를테면?
산이 이를테면 짐채 만 한 덩치에, 뺨눈같이 형형한 안광에, 삶과 같은 털가죽에 날
 카로운 이빨, 뭐 그 정도지요. 본 적 없는 괴수란, 그저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
 이 아는 선에서 최고로 무서운 것들을 한데 모아 떠올리는 형상이지 않겠습니
 까?
전후장 (굳어서) 그런 것은... 사기지 않는가?
산이 이리 많은 사람들이 믿고, 아제 역시 믿지 않았습니까? (평상 구석에 처박아
 놓은 그림을 가리키며) 이것을, 백두라 믿고 쓴 것 아닙니까?
수풍 어린 것치고는 제법 세상 이치는 터득했군.
산이 (그저 웃는다)
수풍 그럼 어때? 이참에 우리랑 같이 일해 보는 건?
전후장 (놀라서 수풍을 본다) 나으리, 어찌,
수풍 (전후장의 말 끊으며) 옛말에 세 사람만 우겨대면 없던 호랑이도 만든다지? 내
 생각엔 자네 그 입재주가 우리한테 도움이 될 지도 모르겠어. 어쩐가? 어린 화
 공계선?
산이 ...
수풍 우리와 함께, 3인의 사냥꾼이 되어 보겠는가?

편 16. 길거리

전후장, 화를 애써 억누르고 있다.

수풍은 전후장을 신경 쓰지 않은 채 유유자적 걸어가고, 붓짐을 진 산이는 저잣거리를 구경하느라 정신없다.

전후장 (수풍에게 가까이 다가가) 나으리, 저는 목숨을 걸고 백두를 잡을 작정입니다.

수풍 그걸 누가 모르나? 자네가 백두에 미친 것 말일세.

전후장 저런 애송이, 거기다 사냥꾼도 아닌 환쟁이 따위를 데리고 유유자적 소일거리 삼아 떠날 길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수풍 그래- 아, 누가 뭐라는가? 자넨 백두를 잡아. 허나 다만 난 말이야, 만약의 경우를 대비할 뿐이야. 자네가 백두를 잡지 못할 경우, 말일세.

전후장 (이를 딱 물며)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편 17. 전후장의 집 인근

인아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진다.

전후장, 재빨리 달려가면, 마을 아이들에게 놀림 받고 있는 인아가 보인다.

인아의 앞에는 작게 불이 피워져 있다.

아이1 (불구덩이에 책을 던지며) 인아(人兒)? 네 까짓 게 인아는 무슨! 인간은커녕 짐승만도 못한 놈이! 이걸 보면 네가 무슨 말인지 알기나 해?

인아 (울면서) 안 돼- 우리 아버지가 공부하랬어. 나 책 봐야해! 공부해야해!

아이2 읽을 줄이나 아냐?

인아 (자신보다 한참 어린 애들 앞에서 찢찢 매며) 몰러! 봐도 몰러! 그래도 봐야해!

아이1 멍청하기는!

전후장, 비웃는 아이들을 헤치고 인아를 끌어안는다.

전후장 고약한 것들! 어여 물러가거라! 어여!

아이들, 별로 겁내하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몰려 사라진다.

인아 (연신 타고 있는 책으로 손을 뻗으며) 아버지, 아버지!

전후장 (인아의 등을 토닥이며) 됐다, 인아야, 됐다. 괜찮다. 이 아비가! 저거보다 더 좋은 책 사다주마. 더 재미난 책으로 사다주마.

인아 (코를 훌쩍이며) 재미난... 책도 있어?
 전후장 그럼. 있지. 대신 재미난 책은 사오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 그래도 이 아비 기다릴 수 있지?
 인아 (활짝 웃는다) 응, 아버지, 걱정하지 마! 나, 밤에 혼자서도 잘 자. 뒷간도 혼자 잘 가! 그리고 밤에는 내 친구 나비도 온다?
 전후장 나비?
 인아 응, 꿩이 새끼한테 귀여워. 엄청 귀여워. 내가 나비야- 부르면 쪼그만 게 막으르렁 거린다니까.

전후장, 인아의 방싯대는 얼굴을 쓰다듬고는 이내 자리에서 일어난다.

전후장 인아야, 아버지 갔다 올게. 집 잘 지켜라.
 인아 응!

썸 18. 마을 어귀

인아, 마을 어귀까지 따라 나오며 전후장을 배웅한다.
 손을 뽕뽕 흔들어대는 인아에게 손을 흔들어 보이는 전후장.
 전후장이 등 뒤에 맨 총이 햇빛을 받아 번쩍인다.

썸 19. 마골산 어귀

긴장된 얼굴로 산 입구로 들어서며 전후장과 수풍.
 커다란 꾸러미를 어깨 가득 짊어진 산이는 여유로운 얼굴로 휘파람까지 분다.
 그런 산이를 노려보는 전후장.
 산이, 어깨만 으쓱한다.
 수풍, 산이의 휘파람 소리에 긴장이 제법 가라앉은 얼굴이다.

썸 20. 마골산 어귀, 산신각

소담하게 지어진 산신각 내부, 인자한 노인 형상의 산신이 거대한 백호(白虎)에 기대 앉아 있는 그림이 정면에 걸려있다.
 그 앞에 간단한 음식을 올리고 절을 하는 전후장.
 뒤에 선 산이, 어쩐지 조금 민망한 듯 산신 그림에서 시선을 뺀다.

수풍 (황당해하는) 호랑이를 잡으러 와서는 호랑이에 제를 올리는 건 뭔가?
 전후장 그냥 호랑이가 아닙니다. 저 백호는, 호랑이 중의 호랑이, 이 산의 왕이라 할 수 있는 산군입니다. 이 산의 호랑이를 잡으려면, 저 산군과 산신에게 허락을

구해야지요.

수풍 무지몽매한 아랫것들이나 하는 짓인 줄 알았더니, 이제 보니 전후장 자네도 미신에 매여 있었군? (노골적으로 비웃는) 어디 그래서 저 산군께서는 허락을 하셨는가?

전후장, 수풍의 빈정거림에도 묵묵히 절을 할 뿐이다.

췌 21. 마골산 산길

수풍, 지치고 지루한 기색이 역력하다.

수풍 백두는 언제쯤 볼 수 있는가?

전후장 (수풍의 호피 옷을 흘끗 보고는) 보고 싶다고 마음대로 볼 수 있는 놈이 아닙니다. 몇 날 며칠이고 미끼를 치고 땃을 놔서 그 놈이 우리를 찾아오게 만들어야지요.

수풍 며칠씩이나?

전후장 ... 그럼 산에 들어오자마자 떡하니 잡을 수 있을 줄로 아셨습니까?

수풍 (점연쩍은 얼굴) ... (헛기침 하며 괜히 힘을 준 호피 옷만 하염없이 쓸어내린다)

산이 (마냥 신나서) 그럴 줄 알고 (붓짐을 들썩이며) 먹을거리를 잔뜩 준비해 왔지요!

수풍 (흡족해서) 역시 세상 이치를 파악한 친구야!

췌 22. 마골산 깊은 곳

나무에 기대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는 전후장.

산이는 어느새 화구를 꺼내 산 여기저기를 그리고 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불일을 보고 있는 수풍.

꾸 하며 연신 힘을 주고 있는데

전후장의 땀달이 쏟아진다.

전후장 나으리, 아직 이십니까?

수풍 (짜증스런) 호랑이만 보는 게 어렵나? 나도 보기 힘들단 말일세!

전후장 그렇게 오래 쭈그리고 있으면,

수풍 (열 받아서 말 끊어먹으며) 아, 나올 것도 도로 들어가겠네!

전후장 호랑이가 공격하기가 쉽단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있으면, 호랑이가 보기에 얼마나 작고 연약해 보이겠습니까?

그 말에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 옷을 훑치는 수풍.

수풍 원, 그런 거면 진즉 말하지! (하며 아쉬운 듯 바닥을 보는 데, 제 것이 아닌 낫
선 변이 눈에 들어온다, 어이없어서) 원, 변을 이리도 질편하게- (수풍, 역하
다는 듯 고개를 돌리는데)

그 순간, 수풍의 중얼거림을 들은 전후장이 재빨리 다가온다.

수풍 (의아해서) 왜 그러나?

전후장, 몸을 숙이고 바닥에 흩어져 있는 변을 관찰한다.

수풍 (민망해서) 난 아닐세.

전후장 ... 호랑이 변입니다.

전후장, 호랑이 변을 주머니에 챙겨 넣는다.

수풍 (꺼리는 얼굴로) 그 냄새나는 건 왜 챙기는 건가?

전후장 호랑이 변을 목장이나 논밭 주변에 뿌려두면 다른 산짐승들이 접근하지 않는
법입니다.

수풍 그래?

전후장 그것보다도,

산이 (끼어드는) 이 근처에 호랑이가 있을 지도 모른다는 거구요.

산이, 어느새 재빨리 호랑이를 그려 넣은 그림을 일행에게 들어 보인다.

수풍 그림 이것이 백두의 것이란 말인가!

전후장 그거야... 알 수 없지요. 허나 발자국 폭이...

전후장, 변이 있던 근처 땅에 남아있는 호랑이 발자국을 손으로 재 본다.

전후장 낮이 익습니다.

- 인서트

썸 6에서 등장한 호랑이 발자국

수풍, 긴장해서는 어깨를 움츠린다.

수풍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 그림 이제... 우리 고생도 곧 끝이 나겠군.

산이 (명랑하게) 저도 진짜 백두를 그릴 수 있겠네요! (전후장을 보며) 이번에는 사
기라 아니 하실 거지요?

그 때 온 산을 찌렁찌렁하게 울리는 호랑이 울음소리!
수풍, 그대로 굳어서 움직일 줄 모른다.
전후장, 침착하게 총을 손에 쥐고는 주변을 살핀다.
또다시 울리는 호랑이 울음소리.
수풍, 덜덜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조금씩 움직인다.
일단 다리가 땅에서 떨어지자 그대로 뱀다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가는 수풍.

전후장 나으리! 그렇게 함부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전후장의 외침을 무시한 채 열심히 도망가던 수풍, 그대로 돌부리에 걸려 앞으로 넘어진다.
수풍, 땅바닥에 엎어진 채 애써 몸을 일으키려 하지만 팔을 빼앗하여 제대로 몸을 일으킬 수가 없다.
그리고 매마침 재차 들려오는 호랑이 울음소리.
수풍, 그대로 다시 땅에 얼굴을 박고 기절해 버린다.
전후장과 산이, 수풍이 한심하다.

썩 23. 이대감 저택

팔에 붕대를 감은 채 비단금침에 누워있는 수풍.
이대감, 걱정 가득한 얼굴로 연신 수풍을 살핀다.

이대감 그러게 내가 뭐라 했느냐? 어찌 이리 험한 꼴을 당하고 돌아와?

이대감, 마뜩찮은 시선으로 전후장과 산이를 본다.

수풍 아버님, 그래도 전포수의 총이 아니었으면 지금만치 무사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전후장과 산이, 뻔뻔한 수풍의 거짓말에 할 말을 잃었다.

수풍 그 흉악한 괴수, 백두 놈이 제 팔을 무는 순간 전포수가 절묘하게 총을 쏘지 땀니까.

이대감 하여 이제는 어찌할 것이냐? 아직도 백두를 잡겠다는 결심은 버리지 않은 것이야?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수풍 사내대장부가 한번 결심을 했으면 끝까지 지켜야지요. 기실 막상 보니 백두 따위야 그대봤자 금수에 불과하여 그리 대단할 것도 없었습니다.

이대감 수풍아...

수풍 허나 소자를 구한 저 전포수는 제 은인이니 어찌 그 은혜를 저버리겠습니까? 금수가 무서워 어디 인간 된 도리를 저버리는 것을 해셔야 되겠습니까? 전포수

와 힘을 합쳐 끝까지 백두를 붙잡아야지요.

이대감, 대견하다는 얼굴로 수풍의 손을 붙잡는다.
전후장, 기가 막혀서 헛바람을 내뿜는다.

췌 24. 마을 저잣거리

사람들, 화구를 펼쳐놓은 채 손님 초상화를 그리고 있는 산이의 주변에 몰려 있다.
급기야 초상화 손님마저 밀친 채 산이에게 궁금증을 쏟아 붓는 사람들.

- 동네1 그게 참 말인가? 백두가 나타나서 그 재수 없는 놈, 아니 그 이대감 댁 아드님
 이 용감하게 나섰다가 팔을 다쳤다면서?
동네2 그리고는 전포수가 충을 뺑! 쏘서 백두 그 요망한 놈의 눈알에 명중을 시켰다
 며?
동네3 아닌데? 난 다리라고 들었는데?
동네4 난 그게 아니라 전포수도 백두한테 다쳤다고 들었는데?

자기들끼리 왁자지껄한 사람들을 보고 픽 웃는 산이.

산이 (혼잣말로) 정말 말이 퍼지기는 순식간이요, 커지기는 제 몇 대로구만.

그 때 사람들, 말을 멈추고 우러러보는 눈빛으로 어딘가를 바라본다.
산이, 그 시선을 따라 보면 수풍이 으스스대는 걸음으로 오고 있다.
수풍, 다친 팔을 보란 듯이 들어 보이며 산이에게 한쪽 눈을 찡긐 한다.
수풍의 눈짓을 알아차린 산이, 이내 과장 된 몸짓으로 호들갑을 떨며 사람들에게 입담을
늘어놓는다.

산이 아이구, 말도 마세요. 그 백두란 놈이 어찌나 흥흥하게 생겼던지!

산이, 직접 그림으로 그려 보이며 사람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는다.
수풍, 그런 광경을 만족스럽게 바라본다.

췌 25. 전후장의 집

전후장, 피곤한 얼굴로 집에 들어서면 인아가 행복한 얼굴로 감자와 계란 삶은 것들을 바
구니 가득 안고 있다.

전후장 이게 다 무어야?
인아 아버지!

인아, 바구니를 안은 채로 전후장에게 안기려 한다.
전후장, 인아를 달래 바구니를 바닥에 내려놓는다.

인아 이거, 마을 애들이 줬어.
전후장 뭐?

전후장, 혹시라도 또 못된 장난질인가 싶어 날카롭게 바구니 안을 바라본다.
그러나 바구니 안의 음식들은 김이 모락모락 먹음직스럽게 날 뿐이다.

인아 (계란을 까먹으며) 아버지가- 영웅이래. 나쁜... 어... 나쁜 놈을 아버지가 물리
 쳤다던데? 그래서 나한테 먹을 것도 막 주고, 나한테 와서 놀자구도 하고, 또,
 또...

전후장, 해맑은 인아의 말에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전후장 인아야. 아버지 그런 사람 아니야.
인아 응?
전후장 그런 대단한 사람... 영웅 같은 거... 아니다.
인아 (생긋 웃는) 영웅이... 좋은 거지?
전후장 그야... 좋은 말이지.
인아 그럼 아버지 영웅 맞아! 아버지니까!

전후장, 허탈하게 웃으며 인아의 머리를 쓸어준다.

썩 26. 이대감 저택

수풍, 갑갑한 봉대를 풀어버리고 팔을 이리저리 돌려본다.

수풍 흠... 너무 괜찮은데? 그때 좀 더 다쳤어야 했는데!

그 때 밖에서 수풍을 부르는 이대감의 목소리.
수풍, 놀라서 재빨리 풀었던 봉대를 다시 감고는 방 밖으로 고개를 내민다.
이대감, 그리고 그 뒤로 한눈에 봐도 세련되고 고급스런 차림새의 양반 두 명이 거만하게
서 있다.

이대감 인사 드려라. 한양에서 예까지 백두 소문을 듣고 오신 귀한 분들이시다.

수풍, 쭈뼛대며 내려와 양반들에게 인사한다.

양반1 고을에 소문이 자자하더군요. 여기 이대감 댁 자체께서 그 유명한 백두에게 용감하게 맞섰다고 말입니다.

이대감 (꺄꺄 웃는) 나를 닮아 겁이 좀처럼 없대요.

양반2 참으로 뛰어나신 아드님을 두셨습시다.

양반1 헌데 이런 인재가 어찌 이런 한적한 곳에 숨어 계십니까?

양반2 이 양반 말이 맞소이다. 군자란 겸손을 미덕으로 치나, 또한 과한 겸손은 악덕이라 하지 않겠소.

양반1 한시라도 빨리 조정에서 뵙기를 고대하지요.

순간 어색한 정적이 흐른다.

민망한 얼굴의 이대감과 딱딱하게 굳은 표정의 수풍.

양반1,2 서로 시선을 교환한다.

서로를 바라보던 양반1,2의 시선이 문득 수풍에게 이른다.

묘하게 얹잡아 보는 양반1,2의 시선에 얼굴이 달아오르는 수풍.

양반2 (허세 가득한 웃음 지으며) 아무튼 여기까지 온 수고가 허탕이 되지 않게, 모쪼록 저희도 그 백두란 놈을 꼭 좀 보았으면 좋겠군요.

그렇게 말하는 양반들의 뒤로, 호랑이 사냥에 필요한 각종 사냥도구와 신식 총들이 한 께 짝 가득 쌓여있다.

수풍, 분한 낮빛에 경계의 눈빛까지 더해 그것들을 바라본다.

췌 27. 주막

주막의 불결함에 신경 쓰던 것은 까맣게 잊은 채 연신 막걸리를 비우는 수풍.

곧이어 전후장과 산이가 나란히 들어온다.

수풍 잘 왔네. 한시가 급한 일일세.

- 시간 경과

다들 거나하게 취한 상태다.

수풍 (술 취해서 꼬인 발음으로) ...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백두를 만들어야 한다, 이 말일세!

전후장 (얼굴은 상기됐지만, 비교적 또렷한 정신으로) 그러니까 나으리 말인즉, 사기를 치자, 이겁니까?

산이 (말쭉한 얼굴로 계속 술을 마시며) 아제는 사기 정말 싫어하시네? 어차피 믿으면 곧 존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말이야.

전후장 (산이의 말 무시하며) 어차피 난 백두 잡아 영화 볼 생각일랑 애초부터 없었

수풍 소. 나으리 뜻이 정 그렇다면 난 나대로 백두를 쫓겠습니다!

수풍 자네가 무슨 수로?! 여느 호랑이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백두를 자네 혼자 잡겠다고? 헐데 이걸 어쩌나? 자네가 날 떠나면, 그 총 역시 자넬 떠나야 할 텐데. 제 아무리 전포수 자네가 명사수라 할지라도 낡아빠진 구식 총으론 무리 지.

전후장 (수풍이 준 신식 총을 보며 갈등에 빠진다)

수풍 게다가 진작에 우리 셋은 벌써 한 배를 탔어! 이미 우리 셋은 없는 호랑이를 만들어 낸 셈 이라고! 사람들은 다들 자네 총에 백두가 상처 입었고, 난 그 백두에게 상처를 입었고, 그 백두가 바로 저 산이가 그리고 말한 호랑이라고 알고 있다고. 발을 빼긴 무릴세.

전후장 (분하다) ... 처음부터... 이럴 속셈으로...?

수풍 (피식 웃는) 뭐, 백두를 잡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말이야... 어쨌거나 우리 셋이면 충분히 백두라 우길 수 있을 테니, 자네는 그저 무난한 놈으로 하나만 잡아다 주면 돼. 그 이후론 일절 나는 상관치 않겠네. 물론 그 총은 영영 자네 것 일 테고.

그 때 밖에서 소란스런 발자국 소리가 울린다.
이어 문을 마구 흔드는 소리.

아이1(소리) 아제, 아제! 인아가 죽어요, 죽어!

그 소리에 놀라 벌떡 일어나는 전후장.

췌 28. 이대감 저택, 마당

인아, 무언가를 품에 꼭 안은 채 하인들에게 얻어맞고 있다.
양반1,2는 뒷집 췌 채 그 모습을 싸하게 보고 있다.
거친 발길질에도 절대 품에 안은 것을 놓지 않는 인아.
그런 모습에 아연실색한 전후장, 양반들과 인아 사이에 뛰어든다.

전후장 왜, 왜 이러십니까? 나으리들!

전후장을 뒤따라온 수풍이 이대감에게 다가가 사정을 전해 듣는다.
수풍, 곧 이대감에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인아에게 다가간다.

수풍 (답지 않게 자상한 어조로) 아가, 품에 안은 것, 어서 내 놓아라.

양반1 (기가 찬 듯) 아가?

전후장 (인아를 감싸며) 이 아이가, 걸은 다 췌어도 속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백칩니다. 몰라서 하는 것들이니 제발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수풍 (거들며) 저 놈이 어려서 제 어미가 호랑이한테 잡아먹히는 꼴을 보고 정신을

놓아 저렇습니다.

양반2 하! 어딜 호환으로 잃었다는 놈이 지금 호랑이를 감싼단 말이오? 제 어미 원수를?!

그 말에 놀라 인아를 다시 보는 전후장과 수풍.

전후장, 억지로 인아의 팔을 벌려 품 안에 든 것을 본다.

상처투성이의 개호주(호랑이 새끼)가 앓는 소리를 내며 인아의 품에 도로 들어가려고 발버둥 친다.

전후장 (충격 받아) 너... 너... 이놈이!

전후장, 인아의 뺨을 세게 때린다.

그 충격으로 인아가 바닥에 쓰러지면서 개호주도 바닥에 나뒹군다.

깡깡 거리는 개호주와 엉엉 울면서도 다시 개호주를 품에 안는 인아.

인아 (울면서) 나비야! 나비야! 죽지 마라! 나비야-

전후장 (인아를 주먹으로 마구 때리며) 아무리 천치 바보가 되었다 해도! 어찌 네 어딜 죽인 것의 새끼를 물고 빨아! 네가 정말로 세상에 다시없을 천하의 불효를 하는 구나! 이 천치 새끼가!

인아 아파, 아부지 아파! 나비도 아파! 너무 아파!

그런 모습을 보는 양반1,2의 표정이 일그러진다.

양반1 (침을 뱉으며) 기껏 이런 촌구석까지 와서 보는 게 겨우 저런 촌극이란 말인가? 참으로 재수가 없으이.

양반2 저 놈들은 당장에 내쫓아버리고, 개호주 저것은 알아서들 묶어 놓거라! (이대감에게) 소란을 피워 송구스럽습니다.

양반1,2, 획 하니 마당을 빠져나간다.

이대감, 남은 자들을 바라보며 찢찢 혀를 찬다.

그 와중에도 여전히 울고 있던 인아는 제 품에 있던 개호주를 하인들이 뺏어가자 있는 힘껏 반항하다가 결국 제풀에 쓰러져 기절한다.

멀찍이 떨어져 그 모습을 바라보는 산이, 하인의 손에 짐짝처럼 들려 가는 개호주를 바라보는 시선에 안쓰러움이 가득 배어있다.

췌 29. 전후장의 집 (밤)

열이 올라 앓아누운 인아.

그런 인아를 바라보는 전후장의 얼굴에 죄책감이 가득하다.

이불을 들추고 인아의 몸에 난 상처들을 바라보는 전후장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인아 나비야... 나비야...
전후장 이놈이!

그러나 전후장의 말에는 더 이상의 노기는 없다.
전후장, 깊은 한숨을 내쉰다.

썩 30. 마골산, 깊은 계곡 (밤)

세차게 흘러내리는 계곡 물소리를 뒤덮는 호랑이 울음소리.
울음소리가 구슬프다.
그야말로 사람이 곡하는 것 같이 짙하고 슬프다.

썩 31. 이대감 저택, 마당 (밤)

나무 가지에 걸린 노끈에 목 매달린 개호주.
미약하게 잠시 낑낑 대다가 이내 몸이 축 늘어진다.

썩 32. 목장 (다음날)

호랑이에게 물려 죽은 말들.
전후장을 비롯한 목장 관리자들, 당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하다.

썩 33. 마을 전경

마을 곳곳이 호환으로 시끄럽다.
가축이 호랑이에게 물려 죽거나 사라졌는가 하면, 심지어 사람도 호랑이한테 사고를 당해
곡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썩 34. 전후장의 집

작은 천 꾸러미를 든 수풍(이번에는 사냥 준비를 단단히 한 상태다)과 산이.
수풍, 전후장을 부른다.
전후장 역시 기다렸다는 듯 만반의 준비를 갖춘 상태로 나온다.

수풍 은 고을이 호환으로 뒤숭숭하네. 이제 우리는 진짜든 가짜든 백두를 잡지 않으

면 안 되게 되었네.

전후장 (고개를 끄덕인다) ...

수풍 (꾸러미를 들어 보이며) 이게 분명 도움이 될 테지.

수풍, 꾸러미를 풀어 보이면, 개호주 사체가 들어있다.

수풍 어떤가? 미끼로는 최고지? 백두든 다른 놈이든, 제 새끼 냄새라면 찾아오지 않겠나?

전후장 ... (어쩐지 망설이는) ... 그렇... 지요.

전후장, 뒤를 돌아본다.

살짝 열린 문틈으로 잠들어 있는 인아가 보인다.

인아와 개호주를 번갈아 바라보는 전후장.

전후장의 눈에 살짝 연민이 어린다.

그런 전후장의 기색을 놓치지 않는 산이.

썸 35. 마골산 입구, 산신각

제를 올리는 전후장을 타박하지 않고 뒤에서 조용히 기다리는 수풍.

절을 마친 전후장이 돌아선다.

수풍 어제 저번보다 절을 오래 하는 듯 하이?

전후장 ... 새끼가... 죽었지 않습니까.

수풍 (이해 안 간다는 듯) 새끼라 해도 호랑이임은 분명치 않은가? 결국 이 놈도 자라서 호환을 일으킬 것을...

전후장 (어쩐지 화가 난다) 그럴 틈도!... 없었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어린 생명입니다.

수풍 (맘에 안 들지만 그냥 넘긴다) ...

썸 36. 마골산, 깊은 계곡

개호주의 사체를 나무에 매달아 놓고는, 약간 떨어진 곳 바위 뒤에 숨어있는 세 사람.

수풍 이번에는 백두를 볼 수 있겠는가?

전후장 ... 저 새끼의 어미를 보리란 건... 확실합니다.

수풍 (고개 끄덕이는) 그래... 그리고 그 놈이... 백두인 게지.

긴장된 세 사람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지나간다.

센 바람에 흔들리는 개호주의 사체.

그 모습을 뚫히 바라보는 산이. 그러자 곧 바람이 멈춘다.
그러나 바람의 여파로 여전히 조금씩 흔들리는 사체.
전후장, 자리에서 일어나 나무쪽으로 걸어간다.
망설이다가 이내 거침없는 손길로 개호주 사체를 나무에서 내리는 전후장.
나무 기둥에 줄을 묶어 개호주 사체를 바닥에 가지런히 내려놓는다.

수풍 자네 지금 뭐하자는 건가?

전후장, 대답 않고 그저 묵묵히 바위 뒤에 몸을 숨길 뿐이다.

- 시간 경과 (밤)

줄고 있는 세 사람.
어디선가 바람결에 ‘나비야-’하고 부르는 인아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아득하던 인아의 목소리가 순간 또렷해지고, 전후장이 눈을 번쩍 뜬다.
급하게 잠에서 깨 주변을 살펴보던 전후장의 몸이 긴장으로 뻣뻣해진다.
전후장, 떨리는 손으로 양 옆의 수풍과 산이를 깨운다.
잠에서 깬 수풍, 앞을 보자마자 비명을 지르려는 걸 전후장이 겨우 손으로 틀어막는다.
세 사람 앞에는, 달빛을 받아 새하얗게 빛나는 커다란 백호가 서 있다.
새파란 안광을 번쩍이며 세 사람을 바라보는 백호.
백호, 커다랗게 울부짖는다.
귓전을 찌렁찌렁하게 울리던 계곡의 물소리도 백호의 울음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는다.
수풍, 죽을 듯 억눌린 목소리로 겨우 입을 뗀다.

수풍 저, 저 놈이... 필시 백, 백두, 백두(白頭)일세!

동그란 보름달 아래 고고하게 빛나는 백호의 두상.
그야말로 백두의 모습이다.
전후장, 그저 멍하게 백호의 자태를 바라보고 있다.

수풍 이, 이보게, 정신 차리게! 어서, 어서 저 놈을 쏙, 쏙아지!

그러나 백호가 다시 울부짖자, 수풍은 더 이상 말을 잊지 못한 채 이를 딱딱 부딪치며 몸을 댄다.
백호, 이내 몸을 돌려 나무 아래로 천천히 다가간다.
죽은 제 새끼를 정성스레 핏는 백호.
얼굴이며 몸통이며 곳곳을 핏고 뒤척여 보지만 새끼는 눈을 뜨지 않는다.
그 사이, 수풍의 덜덜 떨리는 팔에 이끌려 억지로 총을 손에 든 전후장.
수풍의 떨림이 총에까지 전해져 떨리는 총구가 백호의 등을 향한다.
그러나 전후장, 이내 힘을 주어 총구를 내린다.
제 새끼를 애뜻하게 품고 있는 백호를 차마 쏠 수가 없는 전후장.

썸 37. 전후장의 집 (밤) (회상)

- 썸 29와 연결

꾸꾸 앓으며 잠꼬대 하는 인아.
 인아의 이마에 물수건을 올려주는 전후장.

인아 (평소의 바보 같은 말투가 아니라, 영민하고 또렷하게) 어머니...

전후장, 놀라서 인아를 바라본다.
 인아의 잠꼬대임을 알고는 어깨가 축 늘어지는 전후장.

인아 어머니... 백두가...

전후장, 인아의 또렷한 말투에, 인아를 뚫어져라 바라본다.

인아 그 달 같은 하얀 짐승의 머리가... 날 그냥 뒹요. 날 두고 가요... 어머니를 그리
 해치고는... 나도 그냥 같이 삼켜버리지... 왜 나는... 나는... (흐느낀다)

썸 38. 마골산 인근 (밤) (판타지, 인아의 꿈)

- 썸 6과 같은 장소

달빛 아래 손을 잡고 나란히 걸어가는 모자.
 그런 그들 뒤로 다가온 백호.
 환한 달빛을 가려 어둡게 그늘진 백호의 그림자 아래 서로를 꼭 안고 있는 모자.
 그때 작게 가르릉 거리는 소리와 함께 백호의 옆으로 기어 나오는 개호주 세 마리.
 개호주, 아장아장 다가와 작은 발을 인아의 다리에 올려놓는다.
 긴장이 풀린 인아, 어느새 제 곁으로 다가온 개호주를 쓰다듬는다.
 그런 아들의 행동에 겨우 질끈 감았던 눈을 떠 백호를 바라보는 인아모.
 커다란 그림자와 달리, 의외로 백호는 피골이 상접한 상태다.
 인아모, 백호와 개호주들을 보다가 자신과 인아를 바라본다.
 그렇게 한참을 번갈아 바라보던 인아모, 처연한 미소를 짓는다.
 인아모, 체념한 듯 마음을 정리한 듯 담담하게 백호의 파란 눈을 바라본다.

인아모 새끼 가진 어미 심정은... 헤아려 주겠지?

백호, 순간 대답이라도 한 듯 머리를 움직인다.

꼭 고개를 끄덕이는 느낌이다.

천천히 몸을 일으키는 백호의 하얀 머리가 달빛을 받아 눈부시다.

인아모 **아아... 그야말로 백두로구나.**

인아모, 눈을 감는다.

곧이어 인아모를 덮치는 어두운 그림자와 하얀 백호의 몸체.

‘안 돼!!!!’ 하는 인아의 비명소리-

췌 39. 마골산, 깊은 계곡 (밤) (현재)

- 이어지는 ‘안 돼!!!’하는 전후장의 외침과 한 줄기 총성.

두려움에 정신이 나간 수풍이 덜덜 떨리는 팔로 총을 들고 서 있다.

백호의 하얀 털 사이로 피가 배어 나온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수풍을 바라보는 백호.

전후장 **나으리, 정신 차려요! 우리가 이길 상대가 아닙니다. 그냥 뒤요. 그냥 뒤야 합니다!**

전후장, 수풍이 뺏어든 총을 도로 낚아채려 하지만

오히려 수풍은 전후장을 총의 몸체로 후려치고는 더 앞으로 나간다.

수풍 **빌어먹을 뱀 새끼! 빌어먹을 양반 놈들! 빌어먹을 세상! (미친 듯 웃어댄다)
하, 하하하! 이놈이 죽어야 내가 살지. 반쪽자리 양반이 아니라! 나도 당당하게
살아보자, 이거야! 이놈 머리만 들고 가면! 백두 놈 머리만 들고 가면! 나도 어
엿하게 공을 세운 충신이고 공신인 게지!**

수풍, 잘 쏘지도 못하는 총을 마구잡이로 쏘아댄다.

백호가 수풍에게로 훌쩍 뛰어오자, 초인적인 힘으로 껌싸게 반대편으로 피한다.

수풍, 자신의 발치에 개호주 사체가 걸리자 비열한 낮으로 웃음을 실실 흘린다.

개호주 사체를 손에 쥔 채 공중에 들어 보이는 수풍.

백호, 애타게 울부짖으며 제 새끼를 바라본다.

수풍 **어찌지? 네가 그토록 애타하던 새끼가 내 손에 들어왔는데?**

백호, 사납게 으르렁 거린다.

수풍, 피식 웃으며 개호주 사체를 획 던진다.

백호, 몸을 날려 새끼를 받으려 하고 그 틈을 노려 총을 겨누는 수풍.

그러나 백호가 한발 빠르다.

그대로 새끼를 입에 받아 문 채, 수풍에게 달려들어 앞발을 날리는 백호.

총이 날아가고, 총을 들고 있던 수풍의 팔 역시 그대로 피를 흘날리며 공중으로 날아간다.
 비명을 지르는 수풍.
 백호, 자지러진 비명 소리를 내뿔으며 패닉에 빠진 수풍에게 다시 앞발을 치켜 올리는 순간,
 - 빵 하는 총성이 울린다.
 백두의 미간에 정확히 명중한 전후장의 총.
 거대한 백두의 몸이 그대로 뒤로 쿵 쓰러진다.
 총을 내리는 전후장의 얼굴, 씩씩함이 가득하다.

편 40. 마골산, 산길 (밤)

피투성이가 된 수풍을 등에 업은 채 산길을 걸어가는 전후장.
 전후장, 연신 주변을 둘러보며 산이의 이름을 불러보지만 메아리만 돌아올 뿐이다.

편 41. 마골산, 깊은 계곡 (밤-새벽녘)

죽어있는 백두, 그 옆에는 개호주가 나란히 눕혀져 있다.
 개호주의 사체에는 전후장의 옷이 곱게 덮여 있다.
 산이, 안타까워 혀를 차며 백두와 새끼를 어루만진다.
 희미한 빛 덩어리가 백두와 새끼 주변을 에워싼다.
 이내 빛이 달빛만큼 환해지면, 죽어있는 백두의 영혼이 서서히 몸을 일으킨다.
 그리고 그 앞에 선 산이 역시, 흰 연기에 감싸여 모습이 차츰 변화한다.
 산이, 산신각의 인자한 산신의 모습으로 화하여 백두를 쓰다듬는다.

산이 한이 그리도 많았더냐? 허나 이제는 나와 가자꾸나. 널 찾는 아이들이 많아,
 내가 이리 직접 너를 찾으러 오지 않았느냐.

눈물이 떨어질 듯 말간 백두의 눈동자에 비치는 새끼들의 잔상들.
 백두의 옆에 누워있던 개호주를 시작으로 하여 여러 마리의 새끼 영혼들이 백두에게 다가
 와 제 몸을 비벼댄다.
 백두 역시 애뜻하게 제 새끼들을 훑는다.

산이 인간들 손에 잃은 네 새끼들... 허나 인간의 손에 살아난 새끼들도 있으니...

- 인서트

자리에서 일어난 인아,
 힘없이 마당으로 내려서면 어디선가 짹짹 대는 소리가 들린다.
 인아, 화색이 만연해서 소리가 난 곳을 바라본다.
 마당 구석진 곳에 숨어있는 비쩍 마른 개호주.

분명 이전의 개호주와 다르지만 인아는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저 다시 돌아온 나비가 너무나 반가운 인아.
 인아 나비야! 돌아 온 거니? 내가 꿈을 꾸곤 거야?

산이 저 아이는 잘 자랄 것이야. 네 뒤를 이어 이 산을 호령할 놈이지.

그제야 안심했다는 듯 몸을 움직이는 백두.
 그런 백두의 등에 손을 얹는 산이.
 산신각의 그림과 꼭 같은 둘의 모습.
 그런 둘의 뒤로 웅기종기 따라가는 새끼들.
 서서히 아련한 빛에 휩싸여 사라져간다.
 그리고 이와 함께 여명이 밝아온다.

편 42. 마을 저잣거리

위풍당당하고 아름답게 그려진 백두의 그림이 팔랑대며 바람에 날린다.
 그 그림을 낚아채 바라보는 사람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정신없이 이어진다.

‘이게 바로 그 백두란 말이지?’ ‘암, 전후장 그 사람, 이번에 활약이 보통이 아니라던데?’ ‘히야 - 대단하네, 그려’ ‘그나저나 백두가 사람 백을 잡아먹어서가 아니라 머리통이 허영게 새서 백 두라며?’ ‘암만, 여기 그림에 실물 고대로 그려져 있은께.’ ‘그리고 보니 어진 그렸다는 그 환쟁이 도령 말이 틀린 게 아니지?’ ‘암, 금방이라도 호랑이가 튀어나올 것 같은데, 뭘. 이 정도면 나라님이 아니라 나라님의 나라님을 그렸다 해도 믿겠어!’ ‘아, 근데 그 도령은 어딜 간 거래?’ ‘글쎄, 난 모르겠는데.’ ‘나도 몰라.’ ‘나도’...

편 43. 고을 관아

어지를 받든 관리 앞에 무릎 꿇은 전후장.

관리 전후장이 이미 일전에 호랑이 5마리를 잡아 뽐뿌한 민심을 안정시키고 나라의 귀중한 자원인 말들을 지켜낸 공이 크므로 이를 인정하여 절충장군의 직을 내리려 하였다. 허나 금년에 또다시 악호를 잡은 공이 혁혁하므로 가선대부의 직을 내리고, 전후장을 기리는 착호비를 건립토록 하노라.
 (* 실제 착호비 내용을 극에 맞게 각색, 변형함)

마을 사람들, 다들 환호하며 축하해준다.
 인아,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좋아하자 자신도 좋아라하며 웃는다.
 전후장, 담담하게 맑은 하늘을 바라본다.

편 44. 몽타주

- 전후장이 올려다보는 하늘에 날리는 종이 한 장.
종이의 화폭이 점점 넓고 커지면서 장면들이 이어진다.
- 여전히 목장에서 일하며 말을 돌보는 전후장의 환한 얼굴, 그 옆을 빙글빙글 돌며 장난치는 인아의 밝은 모습.
- 몇 번의 계절이 지나가고 -
- 목장에 나타난 호랑이를 향해 총을 겨누는 인아(성숙해진 모습으로). 그러나 호랑이를 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겁만 주어 쫓아 보낸다.
- 호랑이, 인아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천천히 산으로 사라진다.
- 인아 역시 호랑이의 뒷모습을 찬찬히 바라보며 미소 짓는다.
- 눈길을 점점이 수놓는 호랑이의 발자국. 그 뒤를 종종 따르는 새끼 호랑이의 작은 발자국.

끝